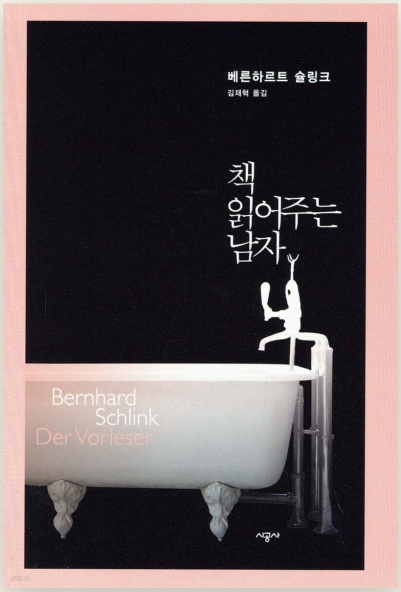


오프모임 · 2023년 2월 25일 · 10명

책 읽어주는 남자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들고 겨울 끝자락 토요일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 각자 꼽은 최고의 장면에서 시작해 한나의 무지와 죄, 법정에서 침묵한 미하엘의 선택, 그 시대를 산 세대의 책임, 그리고 끝내 엇갈린 두 사람의 사랑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장면	앎듯이 시작된 사랑, 녹음테이프로 이어진 사랑
무지와 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다 풀리지 않는다
미하엘의 침묵	알고도 말하지 않은 선택
그 시대라면 나는	세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베른하르트 슐링크 『책 읽어주는 남자』로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오프모임에서 모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 먹으며 시작해, 세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꼽은 최고의 장면

모임 전에 톡방에 '최고의 장면'을 하나씩 적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의견은 적지 말고 장면만 남겨 두었다가, 모여서 그 이유를 직접 듣는 것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린 미하엘이 사랑 때문에 끙끙 앓는 장면을 꼽은 분은 사랑을 얻으려고 고통을 감수하는 모습이 꼭 사랑의 열병 같았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한나에게 책을 녹음해 보내는 후반부 장면을 꼽은 분도 있었고, 한나가 처음으로 보낸 짧은 편지가 이 책 전체를 꿰뚫는 장면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영화를 함께 본 분들은 녹음 장면을 영화가 얼마나 빠르고 인상 깊게 엮었는지도 견주어 보았습니다.

미하엘의 눈으로 본 한나

열다섯 살과 서른여섯 살의 만남. 처음 읽을 때는 한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하엘의 눈으로 본 한나라는 점을 짚고 나니 달리 보였어요. 관계를 시작한 것은 한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과, 조건이 맞으면 나이를 넘어 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함께 오갔습니다.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

가장 오래 붙든 질문은 한나의 무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인가." 글을 모르고 먹고사는 일이 급했던 사람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데에는 환경 탓도 있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무지로 설명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자기 문맹이 드러날까 봐 지지 않아도 될 죄까지 떠안은 한나의 선택은 무지 때문이었을까, 수치심 때문이었을까. 답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 물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은 미하엘

법정에서 미하엘은 한나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말하면 한나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읽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나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진실이 알려지려면 미하엘이 자기 이야기까지 드러낼 각오를 해야 했다는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한나를 사랑했던 소년이었다면, 쉰 살의 미하엘이었다면 선택이 달랐을 것 같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 시대라면 나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세대의 책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도 같은 행동을 했을지 모른다면, 그 사람의 잘못은 어디까지일까. 모두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건 잘못이 아닌 걸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휩쓸렸다 해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시대 탓으로만 돌리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다른 문제다."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나와 미하엘의 침묵을 보여 주며 이 소설이 계속 "당신들은 어떤가" 하고 묻는다는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테이프와 답장 없는 편지

미하엘은 여러 해 동안 책을 녹음해 보내지만, 한나의 편지에는 끝내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은 건 일종의 복수였다고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녹음은 한나를 위한 일이었을까, 자기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일이었을까. 그게 이기적인 행동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물음에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엇갈린 사랑, 한나의 마지막

한나가 정서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일을 어려워했던 것 같다는 이야기, 한나가 미하엘을 사랑한 만큼 미하엘은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책을 읽어 준 소년에게 자신은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고 느낀 상실감, 세상과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마지막 끈을 놓친 마음이 한나의 마지막과 겹쳐졌어요.

영화 음악 '호산나'가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나니 음악 하나도 그냥 넣은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나를 구원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미하엘 한 사람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로맨스로만 풀기에는 모자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시대 전체를 담은 소설이라는 게 보였다는 소감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날 진행 자료

방장이 준비한 슬라이드 6장입니다. 줄거리와 인물이 헷갈리면 여기서 먼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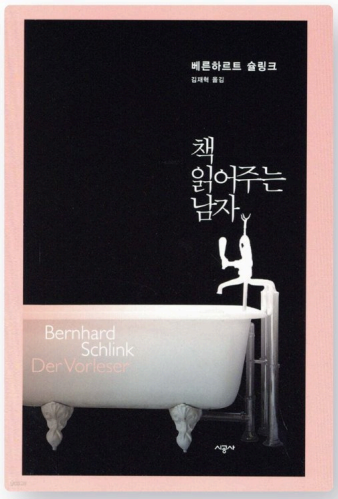
2023. 02. 25 · 오프모임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 김재혁 옮김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

책미사 독서모임



1 / 6

줄거리 · 1부

열다섯 살 미하엘과 서른여섯 살 한나, 책을 읽어 주던 여름



만남	길에서 앓던 소년을 돕는 한나,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간 꼬마
연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듯 빠져듦. 먼저 책을 읽어 주고, 함께 있는 시간
전차	내 뜻과 상관없이 그녀 마음을 상하게 한 걸까?
자전거 여행 & 변화	쪽지 "아침 사 들고 곧 돌아올게". 한나보다 차라리 수영장으로
헤어짐	새 학급, 이제 내 친구들에게로. 그녀가 서 있을 때 왜 달려가지 않았나

2 / 6

줄거리 · 2부

법정에서 다시 만난 한나, 미하엘은 끝내 말하지 않는다



재회	스무 살 법대생 미하엘, 강제수용소 재판의 피고인 한나
한나의 문맹	나치 시절 수용소 감시원. 불타는 교회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보고서를 썼느냐는 물음에 한나는 시인한다
침묵	그녀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 미하엘만 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
판결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또 한 번의 배반. 한나, 종신형

줄거리 · 3부

녹음테이프로 이어진 세월, 답장은 끝내 없었다



책임 & 도피	게르트루트와 결혼, 그리고 이혼. 법의 역사로 물러서다
한나의 편지	8년 뒤 카세트테이프에 책을 읽어 보내다. 4년째 온 한 줄 "꼬마야, 고마워"
마지막 만남	"그 일을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죽음 & 유서	한나의 방. "그녀는 당신의 편지를 고대했어요"
용서	생존자의 딸에게 남긴 돈과 차 깡통, 그 돈은 문맹 퇴치 단체로

생각해 볼 질문 ①

한나는 몰랐고, 미하엘은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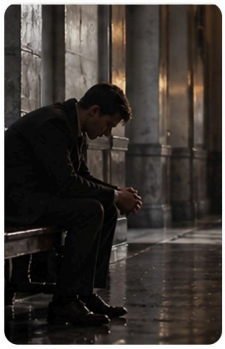


無知 · 무지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

글을 모르고 먹고살기 급했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죄는 얼마나 그 사람의 몫일까요?

문맹이 드러날까 봐 지지 않아도 될 죄까지 떠안은 한나. 무지 때문이었을까, 수치심 때문이었을까?



沈默 ·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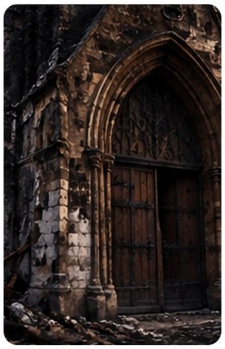
알고도 말하지 않은 미하엘

그가 입을 열었다면 한나의 형량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기 이야기도 드러내야 했지요.

열다섯 살의 미하엘이었다면, 쉰 살의 미하엘이었다면. 나라면 법정에서 말했을까?

생각해 볼 질문 ②

이 소설은 계속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時代 · 시대

그 시대라면 나는

모두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이 아닐까요? 사회가 함께 질 책임과 나 혼자 질 책임은 어디서 갈릴까요?

휩쓸렸다 해도 뒤늦게 깨달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便紙 · 편지

답장 없는 편지

여러 해 동안 책을 녹음해 보내면서도, 한나의 편지에는 끝내 한 줄도 쓰지 않은 미하엘.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거리 두기였을까, 아니면 조용한 복수였을까?

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 이 책의 진행 자료: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5a488b8b.html